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조지아 주에서 열렸다.

제17차 미기총 정기총회 열려

최낙신 대표회장 취임
한기홍 목사 이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제17차 정기총회가 6일(월)부터 8일(수)까지 조지아 주 잔스크릭한인교회(이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 전역과 한국에서 약 120여 명의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 아래 총회가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의 사화로 드린 개회 예배에서는 양병희 목사(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어두운 현실에서 미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한인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며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잔스크릭교회 원로목사인 최낙신 목사가 회장에 뽑혔다. 그는 미기총이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 연합체로서 기도 운동과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년간 회장으로 섬긴 한기홍 목사는 특별히 미기총의 전국적 연합과 기도 운동에 헌신한 바 있다. 그는 JAMA와 함께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성회”를 미주 내 7개 도시에서 열며 전국의 한인교회들을 기도로 연합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수영 기자

이와 관련해 PJI는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PJI의 대표 브래드 다쿠스 변호사를 초청해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714-640-7471

김준형 기자

동성결혼 합법화, 한인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나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 간담회 열고 뜻 모아... 태평양법률협회 13일 관련 설명회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한인교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남가주 한인교계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8일 교계 지도자들은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 연합해 공동대처 하자고 뜻을 모으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향한 소송 대책까지 다양한 부분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송정명 목사가 주선했다. 송 목사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교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특히 한인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계 원로 박희민 목사는 “청교도 가치관으로 세워진 미국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 한인교계가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 연합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이 일로 인해 믿는 이들이 더욱 연합하고 깨어 기도하면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는 미국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가 이 문제로 소송 당한 사례를 이야기 하며 적절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태평양법률협회(PJI)의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도 참석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했다. 그는 “교회 헌법에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가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경우, 종교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며 “내규나 정관에 교회 시설 사용 자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수의 한인교단이나 한인교회들이 이 문제의 시급성을 알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헌법, 정관, 내규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정하고 이를 주 정부에 보고해 놓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회법은 상위법인 교단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단법은 개정에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교회가 일단 교회 시설 사용에 있어서만이라도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그나마 안전하다. ‘사용을 요청하려면 본 교회 성도여야 한다,’ 혹은 ‘신성한 결혼의 결속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교리적으로 현저히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는 것이다. 또 정관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 정부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 두어야 향후 소송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류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께겐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박영심 간호부장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Assistance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의 세례 문답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데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 해도 그렇게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세례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었다.

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시작된 후 첫 세례 지원자가 나오기까지 장장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세례 지원자는 나이 추네(Nai Chune)라는 기독교 학교 남자 교사였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섰을 때 선교사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냉큼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실로 한 세대 만에 나온 세례 지원자의 진심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세례식을 미루며 그의 신앙 상태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제법 오랫동안 점검한 결과 그의 신앙의 확고함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명확성을 파악하고 난 후 감격의 첫 세례식을 거행했다.

한국교회는 태국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선교사 내한 이전에 벌써 수세자가 여럿 있었고, 성경이 번역되어 널리 반포되어 결신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언더우드가 북쪽으로 첫 여행을 갔을 때, 의주에서 100여 명의 결신자들이 세례를 신청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복음 선교는 순풍에 돛 달고 밀려가는 배처럼 미끄럽게 앞으로 나갔다. 즉 세례 신청자들이 밀려 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입교 동기는 달라도 교회는 그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한 조건과 훈련을 요구했다. 불신자가 교회생활을 시작하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학습제도를 거쳐야 했다. 이는 1894년부터 시작됐다. 입교인들이 학습교인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학습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나요?
-용서받아야 할 당신의 죄악들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나요?
-예수는 누구인가요?
-그는 어디서 나셨나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나요?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왜 그는 죄인으로 죽으셨나요?
-그는 완전히 죽으셨나요?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는 다시 세상에 오시나요?
-언제 그리고 무엇 하러 오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나요?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나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였나요?
-날마다 성경을 읽나요?
-얼마나 연속으로 읽나요?
-다른 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일이 있나요?
이상과 같은 질문들에 만족할 만큼 대답을 하면 학습교인으로 받고, 다시 6개월간 세례교육을 시켜 세례 문답에 임하도록 했다. 세례 지원자는 먼저 다음이 요구됐다.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옛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한다.(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 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 생전에 부모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일남 일녀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한다.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

일곱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 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세례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학습교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가요? 왜 그런가요?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어떻게 성수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나요?
-당신은 술을 마시나요? 그리고 술을 집에 두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술을 주나요?
-아내를 돌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
-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두려워해야 할 [악]영들이 있나요? 왜 없나요?
-교회에는 무슨 성례가 있나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 이 예식을 집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요?
-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인가요?
-그러면 왜 당신은 세례를 받으려 하나요?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빵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누가 성례에 참여하나요?
-주의 성찬에 어떤 정신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다른 이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일이 있나요?
위에 적은 물음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야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교육과 표준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정근 목사가 이 학교 박사 과정 집중강의에서 열강하고 있다.

한인 교계 지도력 이양 “이렇게 하면 된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박사 과정 집중 강의

남부개혁신학대학원이 문화소통학 박사(D.Ics.), 선교학 박사(D. Miss.), 목회학 박사(D.Min.) 과정 2015 여름 집중강의를 LA 캠퍼스에서 진행했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적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차세대로의 지도력 이양에 관한 과목은 이 분야의 경험자들이 강의를 맡았다.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와 월드미션대학교의 총장직을 차세대에게 넘겨 준 임동선 목사, 유니온교회와 미주성결대학교를 섬기다 성공적으로 넘겨 준 이정근 목사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중심으로 한인교계 내의 지도력 이양 문제를

다루었다.

선교 지도력에 관해서 강의한 김회창 박사는 선교사들이 현지를 개척한 후에는 반드시 형제주의 의식을 갖고 현지인들과 파트너로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인에 대해 기독교를 갖지 말고 지도력을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선교 방식을 동양선교회(OMS)와 한국 기독교대 한성결교회(KEHC)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강의가 제공되며 현재 여름 학기 수업 중이다.

문의) 213-268-9367

열매교회-리디머교회 통합

안국련 목사는 원로, 김요섭 목사는 담임

열매교회와 리디머교회가 통합한다. 두 교회가 통합하면서 열매교회에서 시무하던 안국련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리디머교회에서 시무하던 김요섭 목사는 통합된 교회의 담임으로 취임한다. 통합된 교회의 이름은 열매교회다.

교회 측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통합하게 됐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

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며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7월 5일 통합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오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열매교회(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90010)에서 안국련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과 김요섭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살롬선교회 돕기

“월체어사랑 이야기”

살롬장애인선교회의 사역 후원을 위한 <월체어 사랑 이야기 박모세 목사 독창회>가 오는 12일 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이 공연에는 조이여성합창단, SCDC수화찬양팀, SDM찬양팀 등이 찬조출연해 살롬선교회의 사역 돕기에 동참한다.

UCS신학대

선교사 블레싱 나잇

UCS신학대학교가 확장 이전을 기념하며 선교사 가족 초청 블레싱 나잇을 오는 11일 오후 5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현지 선교사나 안식년 선교사가 참석할 수 있으며 UCS신학대 강당(3130 Wilshire Bl. #210)에서 열린다.

문의) 213-598-3146



이민교회 목회자를 위한

2015 건강한 목회, 건강한 영성

대 상

초교파 목회자 (현직 목사)

일 시

8/10(월)~8/12(수)

장 소

Carlsbad Holiday Inn (2725 Palomar Airport Road, Carlsbad, CA 92009)



강 사 SPEAKER
정필도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목사

접수 및 등록비

선착순 100명 / 등록비 무료

등록 마감

7/31(금) 까지
<http://scalckc.org> 에서 신청 가능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이현욱 총무 626.318.6611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을! 최고의 통일 준비”

국제하나사랑재단, 가수 소향 초청 자선 콘서트 개최

국제하나사랑재단(LoveOne World)이 가수 소향을 초청해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회장 임덕순 장로는 북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3가지로 꼽는다. 식량, 의약품과 복음이다. 일단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식량은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사랑재단은 땅콩을 주원료로 하는 영양 이유식을 북한의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매일 2천 개씩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은 비타민, 항생제, 진통제, 결핵약 등 약 100여 종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 약들은 북한 소학교에 세워진 39개 양호실을 통해서 공급되며 기본적인 진료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임 장로는 식량과 의약품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돕다 보면, 반드시 복음도 전해질 것이라 믿고 있다.

하나사랑재단의 북한 사역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임 장로는 “현재 북한에는 10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약 240만 명으로 집계된다. 그 중 매우 심각한 영양 상태에 처한 어린이가 70만 명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는 육체는 물론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하나사랑재단이 보낸 방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어린이들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일 준비는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사랑재단은 이 외에도 수년 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복 보내기 운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말 1차분 8천900벌 오리털 자켓을 보냈고 이제 1만 벌을 북한으로 곧 보낼 예정이다.

임 장로는 이번 소향 콘서트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 준비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18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LA의 주님의영광교회, 19일 주일 오후 7시에는 부에나파크의 감사한인교회,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열

바인의 디사이플교회, 25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로랜하이츠의 아름다운교회에서 각각 집회가 있다. 티켓은 20달러이며 두란노서원, 태양여행사 전 지점, 낙원식당, 코리아타운플라자 내 뮤지플라자, 풀러튼약국, 오렌지스포츠, 생명의말씀사 풀러튼 지점, 행사가 열리는 교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www.loveoneworld.org 714-780-0409

김준형 기자

“北 억류 임현수 목사 송환하라”

북미 곳곳에서 기도회, LA는 12일 교계 연합으로

지난 1월 31일 이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의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12일 교계 연합으로 열린다.

지난 4월 12일에도 KCCC 주최로 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기도회는 KCCC 나사렛교회들과 간사들, 임 목사의 지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열렸다. 그러나 이번 기도회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새생명선교회, 남가주장로협의회 등이 함께 하면서 이름도 “임 목사 송환을 위한 남가주 지역 교회 및 단체 연합 기도회”로 결정됐다. 지난 4월 기도회 당시 설교했던 남가주큰빛교회 조현영 목사는 “임 목사 억류가 장기화 되면 본격적인 구명 운동을 대외적으로 펼칠 예정”이라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기도회 행사는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 KCCC 회관(1636 W. 8th St. #205 Los Angeles, CA90017)에서 열리며 기도회 후에는 UN에 보내는 호소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임현수 목사

기도회에서는 이백호 목사가 설교하며 조현영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이성우 목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강순영 목사, 최형호 장로, 한기형 목사 등이 기도를 맡을 예정이다.

LA에 앞서서는 6월 28일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29일 애틀랜타 지역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린 바 있다. 북미주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이 기도 운동은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해외한인장로회(KPCA) 캐나다동노회, 큰빛교회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KWMC가 협력하고 있다.

한편, 큰빛교회 노희송 목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다 알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곧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맞을 것이며 절묘하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도회 문의) 714-844-3705

김준형 기자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 LA 바이블 컨퍼런스 열려

38개 교회 138명 성도 참석해

LA 바이블 컨퍼런스에 38개 교회에서 온 138명의 성도가 참석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이들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요 6:68)”라는 주제 아래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채프만대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5권의 성경을 파고 들었다.

주해홍 목사(90일 통큰 통독, 90일 성경 통독 저자)가 창세기, 셀리안 선교사(에즈라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대표)가 출애굽기, 김경환 목사(실크로드 커넥션 디렉터)가 요한복음,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사도행전, 김성환 목사(가디나장로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각

각 강해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그룹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0명씩 소그룹을 구성해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5개 강의를 3시간씩 들었다. 강사들 입장에서선 똑같은 강의를 5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사와 청중이 친밀함 속에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가족 단위의 참석자도 많았다. 10여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바이블 컨퍼런스가 별도로 열렸고 성경 공부와 크래프트, 액티비티 시간이 있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오경환 목사(안약교회)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회에서는 정기정 목사(샘물교회)가 “지성소에 진동하는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폐회예배에서는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다니엘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강영수 목사(JAMA 디렉터)는 “컨퍼런스 후에도 매주 예배와 매일 묵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파이어크루세이드, JAMA 청년네



바이블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폐회예배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트위크, 자이온마운틴 파운데이션, 관했다. GMIT(Global Media & IT) 등이 주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안국련목사 은퇴 및 김요섭목사 취임예배



안국련 원로목사



김요섭 담임목사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열매교회와 리디머교회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날마다 구속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합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과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통합감사예배)일시: 2015년 7월 5일(주일) 오전 11시

(담임목사 이취임예배)일시: 2015년 7월 12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열매교회당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튼 옆)

Invitation

· 제이슨 송의 교육 칼럼

불편한 예수 (IX)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8. 과학적 이론과 자료가 성경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청소년은 종교보다 과학을 더 믿는다. 그들은 전설같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성경책보다 과학적 이론과 증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육의 결산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은 과학적 이론과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검증하지도 않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 연대측정법(carbon dating)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를 거부한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유튜브와 여러 웹사이트에 영상 콘텐츠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발표된 퓨리서치 센터의 종교 설문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인구 비율이 약 5-10% 줄어가고 있는 대신, 무신론자는 이와 반대로 5-10% 늘어나 총 인구의 25-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무신론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학적 자료가 성경의 하나님, 또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없이도 온 우주 및 생물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신론자 중 리처드 도킨스 같이 공격적이며 비꼬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이라며, 그런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수시로 접하게 해 놓았다. 그러니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과학을 근거로 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학생들과 상담하며 느끼는 점은 학생들이 과학을 진리 및 진실로 여기고, 종교를 미신이나 신화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럼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청소년과 대화하고 이들이 그릇된 생각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주 및 생물체의 근원에 대해선, (1)우주는 창조되지 않았고,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2)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 외에도 공존하는 다른 우주 내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3)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원시적인 액체에서 시작되었고 꾸준히 진화해 왔던지, 아니면 외계인 및 지구 밖의 생명체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선 (1)종교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이란 없다. (2)인생의 목적은 각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지 종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을 믿을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도 안된다

사회적 윤리 및 도덕은 (1)도덕이나 윤리는 집권자들이 만들어 낸 군중장악 도구에 불과하다. (2)윤리란 그저 전통에 불과하다. (3)모든 윤리는 상대적이다. 천국이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미개한 선조들의 상상에 불과하다. 생명체의 모든 비밀은 과학이 밝혀내고 있으며, 언젠가 과학이 모든 답을 찾아낼 것이고, 결국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위에 내용에 대해 기독교 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먼저 지적할 것은 기독교 정통 신앙과 교리를 토대로 한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답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지 내지 무관심으로 인해 이런 답을 대다수의 성도가 모르고 있고, 더 나아가 목회자나 전도사, 신학생들도 무신론자의 주장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변증론 전문가만 다루는 것이란 생각을 고쳐야 하며, 평신도나 기독교 학교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적으로 무장하고 무신론을 따르는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을 제공한다.

첫째, 우주 및 생명체의 근원은 이미 과학, 특히 물리학과 우주학을 통해 창세기와 같은 맥락의 출발점 이 있었음이 근거 및 이론을

통해 증명되었다. 둘째, 다른 차원의 우주나 세계는 아직 공상과학 수준에 불과하다. 영화 아바타가 상영된 후 그 스토리의 배경인 판도라란 별로 이주를 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현실처럼 제작된 그래픽을 보고 그런 곳이 정말 있다고 믿지만 영화는 그저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함을 분별해야 한다. 셋째, 인생의 목표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각자 삶의 목표를 마음대로 정하고, 윤리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사회란 집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 윤리,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류학은 인종, 언어, 종교, 지리, 시대를 초월한 윤리와 도덕이 존재함을 증거한다.

넷째, 신의 존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기 전,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각히 평생을 고민한 대철학자들의 고전을 읽어봐야 한다. 파스텔의 도박, 단테의 인피노, 칸트의 절대 명령 같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고전을 읽어보면 충분히 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신론자들의 알파한 생각에 불과하다.

끝으로, 생명체의 모든 비밀을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가? 정직한 과학자들의 속사정을 들어봐야 한다. 과학이 이전에 모르던 것을 많이 밝혀낸 것은 사실이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세포에 세밀한 부분을 연구하고 파헤칠수록 더 세밀한 차원의 미스테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이란 지적설계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세포의 기능 및 조직을 파악하는 데에 넘치 못할 벽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마치 우주의 원전 및 시작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론적으로만 추상할 수 있듯이 말이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도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그래도 부모와 교사는 진리와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및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동참하는 그런 부모, 그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 청소년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계속〉

코리안의 노래로 코리안 나잇

한인 목회자 중심으로 작곡된 노래

남북통일과 한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인 목회자들이 지은 '코리안의 노래'가 가든그로브 시 원형극장의 코리안 나잇 행사에서 연주된다.

이 극장(The Garden Grove Amphitheater, 12762 Main St. Garden Grove CA92840)에서는 오는 7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시작해 8월 1일까지 매주 목금토 3일간 계속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손영혜(극단 하늘 단장), 장길문, 다니엘 김 씨 등 한인들도 배역을 맡아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극장 측은 이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 특별히 7월 24일 금요일 저녁 공연을 코리안 나잇으로 지정하고 입장료를 5달러로 할인해 준다.

이날 연극은 백경환 목사의 지휘로 "코리안의 노래"가 연주되며 개막된다. 이 노래는 이정근 목사가 작사한 가사에 박재훈 목사, 황의구 교수, 백경환 목사 등이 곡을 붙여 완성됐다. 이 노래의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을 방문했던 이정근 목사는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등 남한과 북한이 함께 부르는 곡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남북한 동포가

함께 부를 뿐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곡을 붙이면서 노래가 완성됐다.

작사자 이정근 목사는 "우리 시대의 민족적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의 정신을 드높이고, 해외 코리안들을 포함한 모든 코리안들이 함께 불러 민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아성과 사명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면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한국적인 꽃들인 무궁화, 진달래, 민들레로 비유하는 은유법을 사용했으며 한국 민족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한(恨)을 승화시켜 온 세계에 희망, 사랑, 평화를 심는 일꾼 되는 것이 그 사명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도록 작사와 작곡에서 최대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리안 나잇 담당자들은 이 개막 공연에 함께 할 한인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티켓 구매: 714-636-3729, 714-590-1575 / 웹사이트: www.shakespeareoc.org / 코리안 나잇 문의: 213-379-0533

김준형 기자



7일 글로벌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한인가정상담소의 백팩 드라이브에 2천 달러를 기탁했다.

새 책가방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아시아 위탁 가정 어린이들에게 새학기에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하기 위한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 프로젝트에 글로벌어린이재단이 2천 달러를 후원했다. 25달러 책가방과 25달러 어치 학用品을 구매해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속한 위탁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한인가정상담소는 300 세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어린이재단의 기부금으로 인해 40세트의 선물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후원 문의: 213-235-4849
rkim@kfamla.org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2015년 여름계절학기
5월 18일 (월) ~ 8월 14일 (금)
- 2015년 가을학기 개강
8월 24일 (월)
- ESL 가을학기 개강
9월 8일 (화)

입학관련 문의

www.ptsa.edu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ij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학생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비전
Vision복음적인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미션
Mission8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한인장로회
(KPCA) 산하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21개 지역 노회와
지교회, 그리고
미전도 지역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학교필드
Field

ptsa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정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정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가족(F2)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귀신의 역사와 예수님의 권능

누가복음 8:26-3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호수라고 하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쉬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40리고,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80리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였기 때문에 그 호수를 일컬어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체험하면서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비유하자면 면소재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 거라사 족속들, 즉 혈통으로 거라사 핏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웃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삽니다. 한국에서는 퇴귀라고 해서 '무덤에 사는 귀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석회석으로 된 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여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곳에 은거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들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하면 계속해서 그 귀신들린 사람이 말하길 '당신께 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절대자로 알아보고 자기는 납작 엎드려서 당신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즉, 자기는 예수님의 권한 아래,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2. 귀신의 발생과 결국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고유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만이 가지신 고유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수종들며 호위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통솔하시기 위해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며 수종들다 보니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자기에겐 과분한 자리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실히 유지해 가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패거리를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루시퍼와 한판거리로 부화뇌동했던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는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18절에 보면, 70명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제자들에 의해 그 귀신들이 쫓겨났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루시퍼가 자기와 작당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시도했던 그 천사들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이 땅으로 쫓겨났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그가 가로되 '군대라'했습니다. 헬라어로 군대는 '레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제국의 부대 단위로 병사 6천명의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아주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는데, 귀신이 왜 이런 간구를 했습니까? 귀신은 이미 자신들의 결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부터 먼저 잡아서 무저갱에 처 넣고, 무저갱을 잠그고, 인봉까지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훗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애다가 문을 닫고, 또 잠그고 인봉까지 합니다.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아

무도 못 열게 도장 찍은 것을 갔다가 붙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국입니다. 이 사탄도 자기가 머지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무저갱에 들어가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3. 귀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식

그런데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비탈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허하시대'(32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갑니다. 멸절하게 살던 돼지 떼가 귀신에게 조종을 받아 갑자기 산비탈을 향하여 그 냥 경주하듯이 줄달음을 쳐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돼지 떼가 엄청난 숫자인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돼지의 숫자가 거의 2천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당 30만원씩 계산해 보면 6억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6억이나 되는 재정적 손실은 왜 생각지 않으셨을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는 돼지 2천 마리의 값인 6억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돼지 2천 마리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품삷을 받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 떼의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은 기가 막히고 앓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리고 그 모든 일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산 곳으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으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미치광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돼지 떼 주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늘 소망을 가꾸어가는 기쁨에 참여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 때문에, 더 재산 피해 볼까봐서 예수님을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영이 구원 얻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돈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피해보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도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 가서, 네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너를 어떻게 멸절히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돼지 떼가 몰사했는지 일일이 다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도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ov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골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8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다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다한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김정원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5세-49세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CD 2회분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문의: kcchoffice@gmail.com
- 3) 전화 문의: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기 타

- 1) 제출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사는 이유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필자가 안 선교사를 만나 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이 기도회 때문이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화교학교를 2년간 다녔다는 이유로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야.”하며 기도회에 끌려(?)간 것이다. 그 이후 중국은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 갈 수 없다 하며 대학에서 다시 언어학을 전공하여 영어교사 자격증을 얻었다. 그리고 중국의 모 대학 영어교수 자리를 응모해서 중국으로 무난히 들어갔다.

그런 안 선교사 가정을 중국으로 파송하던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국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고 준비된 일꾼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벽을 허물고 건강한 복음이 뿜어질 듯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 놓

은 사람이 바로 안 선교사였다. 이렇게 기념비적 중국 사역을 펼쳐가던 안 선교사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소천하고 말았다. 필자는 그 소식을 다른 교회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비행기에 올라 좌석을 찾아 앉자마자 전화로 받았다.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마음이 먹먹해졌던 그 순간 “하나님 저 같은 놈을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병기를 데려가십니까?” 하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 못하며 기도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국선교회를 계속 섬겨오고 있지만, 갈 때마다 고은 시인의 글귀가 자주 눈에 밟힌다.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것은 아직 살아서 ...” 안 선교사 죽음의 값으로 세워진 선교회인데, 그 값을 살어드리는 섬김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려 올해도 또 간다. 안 선교사의 사모 옆에 서면 여전히 하염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지만, 아직 살아 있기에 중국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어서 또 달려간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사는 자들인데... 그 값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것이 아직 살아서...” 회개하며 섬김의 국밥을 꾸역꾸역 먹고 살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때문이 아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수식어 때문이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속에 생기는 질문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신앙이 때로는 기쁨의 이유가 되기는 한다. 어떤 날은 기도에 몰입하고 싶기도 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더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인 듯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설교는 하지만 스스로도 적용하기 힘든 비현실적 명령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문득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 황당한(?) 하나님의 요

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

필자의 딸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이 아이는 10살 때 불의의 사고로 20회가 넘는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늘 건강이 염려되는 아이다. 어느 부모나 다 그렇듯 이런 딸이 늘 가엽고 안쓰럽다. 그래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자주 연락하고, 매일 약 먹는 것 잊지 말고, 절대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이런 저런 잔소리를 늘어 놓는다. 물론 딸도 이런 나의 말을 당연히 잔소리로 여기며,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럴 때마다 부모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섭섭해지기도 한다.

이번 주도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 놓았다. “아빠 말 꼭 들어줬음 좋겠다. 꼭 약 챙겨 먹고, 절대 끼니 거르지 말고, 항상 운전 조심하고...” 그러다 딸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항상, 매일, 자주, 절대, 꼭, 언제나, 반드시, 제발 등과 같은 부담스런 부사들이 꼭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딸은 지쳐가고 아빠는 부담스런 잔소리꾼처럼 여겨짐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런 딸을 조금은 이해해서 ‘절대 그런 부담스런 표현’은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딸에게 그런 표현의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러나 또 다른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너 무도 소중한 딸이니까.” 딸 바보의 아빠는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자식 바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랑때문에 참지 못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것이다.

두려움 극복하기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작했다. 밤새 잠을 설칠정도로 어깨가 아팠다. 금요일에는 몸살 기운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탈도 더 심해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미열이 나기 시작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99.9도까지 올라갔다. 노광조 목사에게 급히 설교를 맡기고 집에서 쉬기로 했지만 느낌이 심상치 않았다. “메르스 증상인가?”

메르스 증상은 설사와 고열, 그리고 기침을 동반한다고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다. 설사는 아니지만 배탈이 났고, 기침은 나지 않았지만 열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영겁결에 마스크를 썼다. 옆에 있던 아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깔

깔대며 웃었다. 그래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다. 마침내 저녁에는 홀로 아래층에 내려와서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몸의 느낌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그 때 딸 아이가 혹시 어제 맞은 예방주사의 부작용일지도 모르니 찾아보겠다며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소리쳤다. “아빠, 예방주사 부작용이야.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미열이 나고 20명 중의 한 사람은 102도 이상의 고열이 난데. 걱정 마.”

그 때서야 병원에서 준 종이를 읽어보았다.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레놀 두 알을 먹고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체온이 정상이 되어 있었다.

아무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지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불안은 정면 돌파하여 그 정체를 들추어내 극복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나마 두려움에 놀아났던 생각을 하니, 가족들 얼굴보 기조자 여간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5. 제출마감: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입니다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호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MEGA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VC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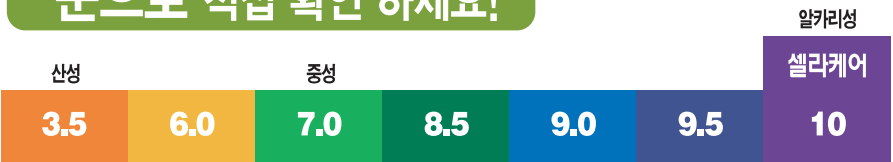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홈쇼핑	714.496.7887	뉴욕,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예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213.268.0844		

“평화목회로 동아시아 안정과 복리 답아내야”

한국교회연합,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 개최



“광복 70년, 분단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
사, 이하 한교연) 주최로 3일 오후 프
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는 “한국 교회: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는 “한국교회가 ‘평화목회’ 속에 남북한의 안정과 복리만기 아니라,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복리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그것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로 부름 받고 보냄 받은 교회의 역사적 사명”이라 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협력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며 “설령 정부 당국끼리의 부정적 대결과 갈등의 상황 속에

서라도 인도주의 지원은 ‘단절 속의 연속’의 모습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 지원은 ‘체제’의 희생양인 백성을 도와 독일의 경우처럼 결국에는 통일의 협력 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통일이 이제 먼 미래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바로 코 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간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으나, 막상 구체적인 준비는 매우 더디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은빈 목사(한교연 남북교회협력위원장)는 “평화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역사의 대세일진데, 독일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첫 걸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 남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답을 열고 사람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박종화 목사의 발표 외에도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란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하고, '통일한국! 한국교회 일치의 열매'(한헌수) '21세기 국제정치 질서와 한반도 평화 통일전략'(윤영관)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김규진 기자

한기지협, 동성애 반대 기도회

동성애 결사 반대 '추진위' 구성하고 결의문 채택



(사)한국기독교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이하 한기지협)가 8일 오전 7시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동성애 결사반대 특별기도회’를 열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므로 순교의 각오로 싸워서 퇴치해야 한다”면서 각 교회에서 동성애 퇴치를 위해 전 교우들이 힘써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가지협은 이날 동성에 결사반대 성명서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로 포장된, 동성에 쿠키축제의 장소를 허가해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도전이요, 서울시민을 우롱한 월권임을 분명히 밝히며, 나아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인류를 말살하려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도전과 계락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어떠한 배려나 보장도 결사반대 한다”고 천명했다.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최초로 축복하신 말씀은 모든 만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동등한 원리 안에서만 변성할 수 있다는 진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에, 동성훈은 온 인류의 적으로 마땅히 척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성에 동성훈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자유와 인

권과 문화에 불균한 것인데, 퇴폐적이고 폐쇄적인 그릇된 문화가 어떻게 보편화 되고 합법화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정치권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1부 예배에서는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경증총회장)가 ‘동성애자의 죄악성’(롬1:26-27)이란 주제로 설교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체권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해’, ‘죄악된 동성에 퇴치와 근절을 위해’, ‘박원순 시장 동성에 오판을 깨닫기 위해’, ‘사탄의 포로된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등의 특별기도를 했다.

또 예매 후 열린 회의에서는 오원식 목사(교계원로), 김진호 목사(목회자), 유달상 국장(언론인), 김수환 장로(평신도)가 동성에 추방에 대한 제언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동성에 추방방법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후 추진위원을 구성했다.

특히 김한식 목사는 동성애 추방을 위한 대책을 전해 주목 받았다. 김 목사는 먼저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교회에서 서로 협력해 주민주권제로 서울시장 직무정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교계 지도자들 “우리는 위선·거짓·교만 가득한 죄인”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회초리 기도 대성회' 열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초리로
자신을 치며 회개했다.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치러진 '2015 회초리 기도 대성회'에서 묵회자 및 참석자들은 '내가 죄인', '회개할 자격이 없는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가득

한 죄인'이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자책초달'을 통해, "나부터 회개한다"며 자신을 질책했다.

이날 ‘사랑과 징계’(히12:1-13)
주제로 설교를 한 조용기 목사(여

의도순복음교회 원로는 “징계는 사람의 매다. 사랑이 깊을수록 행동을 꾸짖고 변화되도록 인도한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창 목사(104세 국내 최고령 원로 목회자)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는다’라는 취지문 발표를 통해 “은퇴 원로 목사들이 앞장서서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다 같이 회개운동에 동참해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자”고 역설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특별메시지를 전하며 “바로 지금, 회개의 고삐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대윤 기자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제 20차 북미주전국기독실업인회 대회

전세계에서 300여 명의 전문 기독실업인들 참가하며 성황이뤄



제 20차 북미주전국기독실업인 회대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 20차 북미주전국기독실업인(CBMC) 대회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 라 파디아공향 인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미 전역과 한국, 유럽, 남미 등에서 300여 명의 전문 비즈니스 기독 교인들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룬 가운데 대회 최초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대해 주최측은 “강연이라기 보다는 모두가 간증에 참여한 분위기가 었다. 강사들의 강의가 깊은 감동을 줬으며 각 지회별 활동보고, 사업 간증도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 깜짝 출연한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의 격려와 간증도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주대회 20년을 기념하며 임정규 전 3대 총연회장, 강현석 전 4대 총연회장, 이정기 전 5대 총연회장, 오대기 전 6대 총연회장, 이광일 전 8대 총연회장, 황삼열 전 CBMC USA 이사장 등에게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또 볼티모어 흑인 폭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성환 메릴랜드 지회장을 위로하

고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대회는 또 역대 총연 회장 모임을 통해 총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의 개회예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정인수 목사는 ‘영적 리더의 모습’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위기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세상 속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시대를 향한 음성을 들으며 위기를 극복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마크 & 진저 위태커 부부의 주제특강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90년대 초반 포춘 500대기업이었던 ‘ADM’에서 고위경영자를 지낸 마크 위태커는 ADM의 가격담합에 참여했다가 연방수사국(FBI)에 자수, 8년을 복역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수감 중 CBMC의 신앙훈련을 받고 변화된 자신의 스토리를 담담하게 간증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앤더슨 김 기자

내쉬빌장로교회 김윤민 목사 위임감사예배



내쉬빌장로교회 김윤민 목사 위임감사예배가 열리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 내쉬빌장로교회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대 담임 목사인 김윤민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김윤민 목사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랜 기간 사역해 왔다.

이날 김윤민 목사는 위임인사를 통해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에 감사한다. 겸손하고 진심하게 목회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위임예배는 워너 더넬 목사(Executive Presbyterian)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내쉬빌한인장로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 다이앤 스타크 장로(Second Presbyterian Church) 성경봉독, 신정인 목사(NCKPC 사무총장) 설교, 위임식, 헌법서약(목사, 성도), 이종민 목사의 축사, 스티브 토마스 목사와 테레세 하웰 장로의 권면, 신현욱 장로(내쉬빌장로교회) 광고, 김윤

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신정인 목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리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의 핵심메시지는 ‘나를 따르라’이다. 그리고 물으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신앙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 목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원하는 삶,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하며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납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주님만 따라가는 목회를 하시길 바란다. 그럴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날마다 내가 죽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영 기자

2015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타코마서 열려

서북미 지역 목회자들의 친선,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한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 대회’가 올해는 타코마 목사회(회장 최성은 목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주관으로 오는 20일,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열린다.

서북미 5개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는 시애틀, 웨드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등 워싱턴주 지역을 비롯해 오레곤과 캐

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사역하는 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북미 지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체육대회는 1세 한인 목회자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1.5세, 2세 한인 목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목사회는 이를 통해 1세와 2세 교회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목회, 신학적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김 브라이언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주일-버릴중학교 / 토요사백 - 17(외버몬트 코너)
주중사백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치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해나며, 소망으로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932-0788 / kuinholy@hanmail.net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정오12: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외)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빛,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넬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후 8:00

곽혁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쉽) 오후 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동성혼 합법화, 기독교에 선전포고한 것

해리 잭슨 목사, 연방대법원 판결 비판

호프처치의 담임목사이자 크리스천 포스트의 객원 칼럼니스트인 해리 잭슨牧사는 6일 연방대법원, 기독교에 선전포고하다!라는 기고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뉴저지주의 한 감리교회는 동성결혼식에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가 세금 감면 자격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잭슨 목사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동성결혼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헌법적 권리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슨 목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전통결혼을 지지할 것이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헌법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목사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 관련, 구두변론에서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은 추가적인 종교 자유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 준

다. 당시 그는 ‘결혼에 대해 계속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가르치는 사립학교는 세금 감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고 우려했다. 이는 앞으로 종교단체들에 대한 세금 감면 자격 박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잭슨 목사는 “평신도와 교회들을 모두 이러한 피해들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흑인 목회자로서 나는 미국에서 권력 옹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1950년대에 나의 아버지는 주 경찰에게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머리 위로 총을 발사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남부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잭슨 목사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결혼의 재정의는 특히 10명 중 7명의 자녀가 입양이 아닌 가족에게서 직접 태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 구조를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혼의 재정의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지금미국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면서 “우리는 전통적 결혼과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이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전했다.



동성결혼 다음은 일부다처?

전 물몬교 신자, 몬태나주 법원에 허용 신청서 제출

2일 몬태나주에서 전 물몬교 신자가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일부다처제 합법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유로 제시한 논리로 인해,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 찬성 의견서는 그 문턱을 낮춰주는 선례가 됐다. 자유주의 정치 평론가 프레드릭 드보어도 최근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ítico)에 게재한 글에서 “사회적 자유주의 다음으로 열렬 지평은 일부다처제가 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다처제로 인해 파문을 당

했던, 전 물몬교 신자 네이션 콜리어는 몬태나주 옐로우스톤 카운티 법원에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이라는 두 명의 아내와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든 주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콜리어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고무되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이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며 접수한 상태다. 이후 신청서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 저자인 조나 골드버그(Jonah Goldberg)는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부다처제 합법화의 길도 열어 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일부다처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이같은 요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美성공회, 결혼정의 변경해

주교회의와 대표의원회에서 가결하고 동성결혼 주례 허용

미국성공회가 6월 30일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고 성직자에게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종전의 교단법에 따르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예식’이었으나, 이제는 ‘이 사람들’ 혹은 ‘이 커플’ 간의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변경된 법은 ‘성직자가 신앙 양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떤 결혼이라도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이 변경안은 지난 6월 30일 주교회의에서,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대표의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성직자 85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고, 평신도 88명이 찬성, 12명이 반대했다. 동성

결혼 주례에 관해서는 성직자 94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평신도 90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했다. 이후 20명의 주교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결혼의 자연스러움과 목적, 의미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관계’와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이 변경안이 ‘주교와 성직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감사한다”고 했다. 미국성공회는 소속 교인 수가 약 190만 명이며, 1976년부터 동성결혼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또 2003년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로빈슨을 주교로 성품례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중전도집회 ‘日 러브소나타’

한일 관계자들, 포럼 열고 그 성과와 방향에 대한 평가 가져



대중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일본 선교포럼’이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다.

일본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맞춤형 문화전도집회’로,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많은 결신자를 낳았던 ‘러브소나타’.

그 대중전도집회로서의 기능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논하는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이 6월 26일부터 27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각 지역 실행위원장 및 한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는 2007년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년간 총 22회에 걸쳐 일본교회와 연합으로 개최되어 왔다. 전국위원장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요도바시교회)는 러브소나타의 운동을 통해 지역 교회가 활성화되고, 각지에서 교파를 뛰어 넘은 연합이 일어나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러브소나타라는 사랑의 흐름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러브소나타가 교회 밖을 향한 전도적인 측면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교회 내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측면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가타지역 실행위원장 나카무라 목사(니가타성서학원장)는 러브소나타 개최의 목적 중 하나인 ‘한일 교회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러브소나타와 같은 기능이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 크리스천들의 선교 포럼이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 간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며 전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변화적인 상황하: 일본 선교의 종합적인 어프로치’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전했다.

문 원장은 러브소나타가 각 지역 교회의 연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집회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계획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류를 활용한 문화 선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어디까지나 방법적인 면이지 우월감을 갖고 한다면 문화적인 침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굳이 한국식과 일본식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관(emic view)과 외관(etnic view)을 갖춘 문화에 대해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함께 변화(transformation)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회가 서로 내관과 외관이 조화되는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牧사는 폐회 인사에서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러브소나타 운동이 지속되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고 했다.

강성현 기자

기독교로 개종한 IS 대원들의 이야기

이슬람국가에 환멸 느끼는 IS 대원들 기독교에 관심 커

자신을 줄리안이라고만 밝힌 한 중동 선교사가 라디오 <순교자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IS(이슬람국가) 대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우리는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웃으로 여겨야 하지만, IS에 의해 전례없을 정도로 이슬람의 사악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IS 추종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불만과 환멸을 주고 있다”고 했다.

줄리안은 특히 자신이 전해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한 IS 대원은 갑자기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됐다.”며 “그는 ‘기분 나쁜 환상’을 본 후 자신의 신앙을 복돋우려고 인터넷에서 이슬람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고 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한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본 뒤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후로 점점 기독교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사이트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늘어나자 시리아를 떠나 터키로 가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인을 만났으며,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IS(이슬람국가) 대원들을 가르치던 한 이슬람 학자는, 중병에 걸린 뒤 무함마드나 알라보다 더 나은 존재를 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이후,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줄리안은 “남성은 폭력적인 지하드에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려 눈을 뜨고 성경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던 IS 대원이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회심한 사건도 있었다. 줄리안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IS가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고 멸해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라면서 “IS는 비열하고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줄리안은 “이들은 속임을 당해 온, 잃어버린 자들”이라면서 그들 중에 바울과 같은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IS, 선전용 전단지 통해 경고

라마단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서 기독교인 몰아낼 것

IS(이슬람국가)가 이슬람 금식 절기인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아랍어로 된 선전용 전단지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IS 총책임자라고 자칭한 인물은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경우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배반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도 요구했다. 또 “시온주의자들과 협력하는 이들이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종교(이슬람)를 버리고 세속적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악을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브레이킹뉴스 이스라엘은 IS가 현재 이스라엘에 작전본부를 갖추고 있는 않지만, IS에 동참하는 무슬림 지지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IS 깃발이 게양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성전산 보호운동가인 랍비 예후다 글릭(Yehuda Glick)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글릭은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라마단 같은 절기는 폭력과 테러의 절기로 해석된다”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성전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이곳이 IS에 점령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IS는 최근 ‘건국 1주년’을 맞아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 등에서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을 살해했었다.

O.C./앨버틴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아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강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토)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bl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m.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담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요일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행사/바다의 새벽 6:00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이승필 담임목사**
금요일일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새로운 교회
이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하고 기쁨을 받고 온전케하신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골로3:1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묵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묵회 교육원 원장 **리세열**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묵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묵회에 뜻을 두신 묵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토요 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범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ive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7: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하스팩 예배 오후 5:00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강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교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 시스템의 공급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 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800-342-5397

LADWP

the C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3.38**

Wat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LADWP

the C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클러 노즐 무료교체.
-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이슬람의 유혹 앞에 선 한국교회 청소년들

최근에 한 중학생에게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저는 15살의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었어요. 특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종교를 공부하던 중에 이슬람을 알게 되었고,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렸어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개종 후 이슬람 공부를 하던 중에 이슬람에서는 ‘성경은 변질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꾸란 10장 94절에 보면 ‘만일 꾸란의 계시에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물어 보라. 진리는 이미 거기 다 나와 있다’고 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유 선교사님의 이슬람 강의를 유튜브를 통하여 듣고, 이슬람이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 글을 받은 다음 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 군이 살고 있는 P도시로 달려갔다. 이 군은 어머니에게 필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함께 나왔다. 이 군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세의 앳된 청소년이었다. 그는 무한경쟁으로 하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터넷에 심취하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종교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 사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슬람 사원에서 많은 이슬람 책들을 보내와서 그 책으로 공부한 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었다. 그 다음은 편지의 내용과 같이 ‘유튜브’에 있는 필자의 강의를 듣고는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다. 이 군은 그 자리에서 이슬람을 믿으면서 공부했던 12종류의 이슬람 서적 19권

을 필자에게 주었다. 그 책들은 모두 이슬람 사원에서 무료로 보내준 것들이었다.

이 군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자는 한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슬람에 노출되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5년 새해에 한국을 강타한 소식, 즉 18살에 불과한 김 군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IS(이슬람국가)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후 지난 5월 31일자 SBS가 스페셜 다큐멘터리 『IS 이슬람 전사 그리고 소년들』 편을 방영하며, 이미 IS에 가담한 한국인이 김 군 외에도 여러 명 더 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들 중 80%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영어로 그들을 ‘Back Sliding Christian’이라고 부른다. 한때 교회에 출석했지만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2013년 5월 런던(London)의 한 거리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영국 군인 ‘릭비’(Lee Rigby)가, 길에서 참수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를 죽인 범인들은 다름 아닌,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이었다. 마이클 아데볼라요(Michael Adebolajo)는 2001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으며, 공범인 마이클 아데바웨일(Michael Adebowale)도 2005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들은 영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나이지리아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것이다. 이렇듯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이슬람 가정에서 자란 무슬림보다 더 과격하게 행동하고, 기독교를 잘 안다는 생각에 기독교에 대하여 더욱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된다.

이슬람은 한국에서도 조직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유 해 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한국 이슬람 전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던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이슬람은 한국 무슬림 선언서를 낭송하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행한 ‘한국 이슬람 50년 자료집’(Da’wah Plans in the Future, 2005년 11월)에 보면,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이슬람 사원 건립 2)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꾸란(quran)의 새로운 번역 추진 5)이슬람 대학 건립 6)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바로 다음 장에 무슬림들과 한국인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른바 ‘생물학적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이 실려 있다. 즉, 6가지 선교 전략과 ‘생물학적 이슬람화’를 합하여 ‘7대 전략’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 보자.

1. 모스크

모스크(Mosque, 이슬람 사원)는 이슬람의 예배 처소이다. 무슬림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매주 금요일에 행하는 예배 시간에도 모스크를 방문한다. 그들은 모스크를 마치 개신교의 교회, 천주교의 성당, 불교의 절과 같이 여긴다. 유럽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에 모스크와 센터 등 이슬람 관련 건축물이 4배 증가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는 이슬람 사원이 약 6,000개 있다. 미국에는 3,500개의 모스크가 있고, 이는 매주 4~5개씩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내에 건립된 모스크는 총 15개다. 서울(한남동), 부산, 경기도 광주, 전주, 안양, 안산, 인천 부평, 대구, 광주, 전라도 광주, 포천, 제주, 대전, 김포, 창원 등에 있다. 기도 처소(Musalla)는 전국에 약 100개 있다. 이러한 기도 처소는 모스크로 발전되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한 종파인 시아파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기도 처소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는 예배 처소로서의 기능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모스크는 그곳이 알라의 땅임을 표시하며, 이슬람 공동체의 중심이자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슬람 사원에는 무슬림들만 출입할 수 있다. 결국, 한국 내에 모스크가 세워졌다는 것은, 한국 내에 한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인 이슬람 영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출판(出版) 사업

국내의 주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남녀노소(男女老少) 구분 없이 읽을 수 있는, 이슬람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우리는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 관련 서적과 만화책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이슬람의 전파와 칭기즈 칸의 대원정’(한국가우스), ‘이슬람의 기쁨 라마단’(스푼북),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초록개구리),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청솔), ‘무함마드와 이슬람 제국’(주니어김영사),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이슬람의 모든 것’(주니어김영사), ‘이슬람이 알고 싶다’(중앙),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코란’(은하수미디어) 등이 그것이다. 1950년 이후 2000년대까지 약 50년간 이슬람 관련 도서는 70여 권이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2012년까지 출판된 도서는 총 500권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문제는, 이슬람에서 발행된 책들은 의도적으로 이슬람의 어두운 부분은 가리고, 기독교와 유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슬람의 알라에 대해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홍보한다는 점이다.

1997년에 최영길 씨는 꾸란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알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모두 바꿨다. 이로 인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를 동일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꾸란의 새로운 번역들을 추진하면서, 아랍어 원문이 주는 의미를 약화시킨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꾸란 4장 34절에 ‘순종지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인에게 남자는 ‘충고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에는 가볍게(lightly)라는 단어가 없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꾸란의 일부 구절들을 완곡

하게 번역하여, 이슬람을 기피하려는 현상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의 출판 사업은 매우 활발하다.

3. 이슬람 홍보

이슬람은 방송매체나 문화 강연 등을 통해서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부터, 이슬람은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좋은 면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슬람은 9.11테러로 인하여 교세가 위축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를 자신들을 잘 알릴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아랍 문화를 알리는 전시회, 문화 축제, 도서전 등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이슬람의 보물전 등, 크고 작은 이슬람 관련 전시회는 총 20여 회 이상이었다. 또한 이슬람은 문화센터를 개원하고 지속적인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방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 주요 신문사나 잡지에 중동 관련 기사를 연재하면서, 국내에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중동과 아랍 문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우디에 있는 세계이슬람연맹은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국가가 만든 단체다. 그들은 한국 포교를 끝내고 일본으로 넘어 가자고 한다. 한국도 어느 새 이슬람 포교 활동의 중심에 와 있다. 이제 이슬람에게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

얼마 전 한 목회자가 조기 은퇴하고 분당에 대안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목회자를 만나서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들었다. 그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40%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남은 인생 동안 대안학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그 청소년들은 다른 종교를 찾아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현존하는 미래’인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군이 이슬람 사원에서 받아서 공부했던 12종 19권의 책 ©FIM국제선교회

점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향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복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테오 갤러리아)

Tel:323)316-6815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팡이, 화학물질, 갑파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향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국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공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Simitri with Biomax *Optional : Fax & Finisher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1

*2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믿음으로 승리한 감동 스토리

정원채 | 쿼란출판사 | 276쪽

저자는 오늘날의 세대가 각박해지면서 젊은이들이 목적없이, 뚜렷한 뜻대 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처절한 경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입고 재기 불능의 사경을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전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서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다.

죽음과 고통, 그리고 생명

박형국 | 모시는사람들 | 295쪽

국내 유일 '죽음 연구소'인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에서 펴낸 '타나토스(죽음) 총서' 4권. 죽음의 긍정·부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단선적·피상적 죽음 이해와 실천의 극복을 모색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과 공포에 대한 연약한 인간의 자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준비된 죽음이고, 타자를 위한 공적인 죽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칼 힐티 | 문예출판사 | 280쪽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상사회를 꿈꿨던 스위스의 저명한 사상가인 저자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 불면의 밤이야말로 복이나 선물과 같으며, 불면의 고통에 몸부림치지 말고 양서를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권유한다. 고요히 내면을 돌아보고, 매일 이러한 숙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것. 이를 위해 1년 365일 매일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을 실었다.

붉은 고래를 찾아서

석용욱 | 홍성사 | 232쪽

다양한 그림목상집을 썼던 저자가 펴낸 '장편'. "죽어야 한다, 죽어야만 한다!"는 내적 음성을 따라 스스로 들어선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힘 다해 새겨 넣은 울림이다. 전체 스토리를 이끄는 '붉은 고래'는 시종 '인생이라는 항해'의 본질을 되새기도록 인도한다. "누구에게나 평생에 한 번은 찾아오는 이 '붉은 고래'를 만난 사람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REVIEW

“사유와 통찰로 깨우친 장경철 교수의 성품학 개론”

이름보다 오래 기억될 당신의 성품을 축복합니다!

성품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요, 상대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이다.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신 아홉가지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돕는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만의 독특한 화법과 논리로 하나님의 아홉가지 성품에 대해 말하며,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첫째, 사랑의 성품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둘째, 기쁨의 성품은,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흔쾌한 칭찬과 인정 가운데, 관계의 아름다움을 펼쳐게 한다.

셋째, 평강의 성품은, 삶의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붙들게 한다.

넷째, 인내의 성품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눈앞의 득실을 떠나 더욱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다섯째, 자비의 성품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에 새 지평을 열게 한다.

여섯째, 양선의 성품은, 상대방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느끼도록 도우며, 그의 최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일곱째, 충성의 성품은, 민기로 작정한 그 대상을 시간의 검증을 통해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게 한다.

여덟째, 온유의 성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환대하게 한다.

아홉째, 절제의 성품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상대방을 인정하며, 더 나은 다음을 위해 준비하게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아홉가지 성품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훈련할 수 있게 한다.

자녀의 인성교육 및 화목한 가정상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교회, 학교, 직장 등 소그룹 구성원 간의 성품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할 것이다.

저자 장경철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Th.M., Ph.D.)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상생활의 깨달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장경철 교수의 문화 읽기', '축복을 유통하는 삶', '신학으로의 초대'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성품(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두란노
장경철 | 188쪽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를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들!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251면 / 10,000원

Q 쿼란출판사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 홈페이지 | www.qlmran.co.kr • 서울 홍로구 이화정길 6 • TEL : 747-1004(대)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18세기 선교행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한 시대였던 18세기 부흥역사 이해에 도움돼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년)는 1714년 12월 16일 영국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토마스 화이트필드와 엘리자베스의 일곱 자녀 중 막내동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벨 여관의 주인이었으나, 화이트필드가 두 살 때 사망했다. 그의 어머니가 사업을 이어가면서 8년 후 재혼을 하였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 때문인지 화이트필드는 어린 시절 악동이었다. 그는 거짓말, 욕설, 어리석은 농담 등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도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했고, 교회당에서 아주 불경하게 행동하기 일쑤였다.

후에 그는 옥스퍼드에서 신앙적으로 열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홀리 클럽’이다. 이들은 엄격하고도 철저한 시간 관리, 규모 있는 생활방식을 추구했다. 화이트필드는 옥스퍼드 재학 중 초기 10개월을 제외하고는 홀리 클럽에서 영향을 받으며 학업에 정진했다.

조지 화이트필드는 열정의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에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진정한 슬픔이 있었다. 분명한 억양, 우렁찬 음성, 청중의 마음을 열게 하는 설득력, 그리고 유행어와 예화의 적절한 사용 등은 그의 설교의 특징이었다. 그는 눈물 없이 마친 설교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1879년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은 이런 화이트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지 화이트필드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 종종 그의 생애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펼치든 즉각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화이트필드의 모든 삶은 불이었고 날개였으며 힘이였다.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내게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조지 화이트필드이다.”

이 책은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 모음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간들을 기록한 이 일기를 통해, 읽는 이들은 그의 사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신학적 특징까지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
조지 화이트필드
지평서원 | 824쪽

어떻게 그를 빚으시고 다루셨는지도 엿볼 수 있다.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George Whitefield's Journals)〉는 18세기의 사도행전이요 선교행전이다. 이것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한 시대였던 18세기 부흥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기다.

이는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화이트필드의 근황을 알고 싶어하는 영국의 친구들과 동료에게, 일기 형식의 선교·사역 보고서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1937년 12월 29일부터 1741년 1월 18일까지 약 3년 20일 동안의 기록이 7권으로 나뉘어 차례로 발간되었다.

이 기간은 화이트필드의 평생 일곱 번에 걸친 미국 선교여행 중 23세부터 26세 때까지의 1·2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자기성찰 형식이 아니라, 미국 선교여행 일지에 해당한다.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 일지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존 웨슬리의 일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웨슬리의 일기는 1735년부터 1790년까지 약 45년에 걸친 26권의 방대한 일기인 데 반해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약 3년간의 짧은 선교여행 중 일어난 부흥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전도자로 불리는 한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준다. 화이트필드는 20세에 극적인 회심을 하여, 22세부터 55세까지 약 33년 동안 전도자로서의 공적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한마디로 경이롭다.

화이트필드는 자신의 공생애 33년간, 한 번 항해에 두세 달씩 걸리는 영

국과 미국 사이 대서양 횡단을 무려 열세 번이나 하면서 7차에 걸친 미국 순회 선교여행을 했다. 또 미국에서 귀국하면 영국과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을 여러 차례 순회하며 설교했다.

33년간 그는 비교적 큰 대중 집회만 1만 8천여 회, 작은 집회까지 하자면 약 3만여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다. 이는 평균 매일 하루에 3~4차례씩 6~8시간 동안 설교하기를 일년에 1천 번 이상, 30여 년간 동안 3만 번이나 지속한 것이다. 그것도 현대식 음향시설 없이 대부분 옥외에서 육성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지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이런 경이로운 복음전도자 화이트필드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백금산 목사는 화이트필드의 일기가 우리에게 ‘영적 각성제’의 역할을 해 준다고 말했다. 화이트필드의 일기는 단순한 18세기 부흥의 일차적 자료라는 역사적 가치를 넘어서,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발자취로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준다.

화이트필드는 1740년 10월 17일 뉴잉글랜드 노스햄프턴(Northampton)에서 영적각성운동을 전개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난 후 이렇게 기록했다. “에드워즈는 견고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뉴잉글랜드에서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일이었던 이를 후(19일) 일기에는 에드워즈 부인에 대해 “온유하고 고요한 영혼으로 장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확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고 기록했다.

이 책의 부록에는 존 웨슬리의 ‘값 없는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에 대한 답변으로, 존 웨슬리 목사에게 화이트필드가 보낸 장문의 편지가 실려 있다.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곳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웨슬리 자네가 선택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네.”

웨슬리는 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수천, 수만 명의 죄인들을 회개시킨 사람들에게 대하여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토록 많은 죄인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에게 대하여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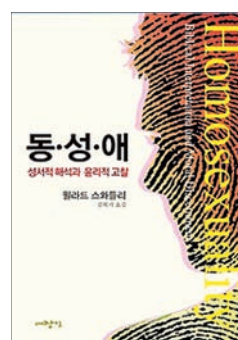
그의 일기를 통해 그 목소리는 지금도 살아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

동성애, 변화 요청 ‘수용 대 비수용’으로 반응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
윌라드 스와틀리 | 대장간 | 276쪽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서울시정 일대 쿼터 퍼레이드, 그리고 교계의 대대적인 반대집회로 ‘동성애’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출간된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은, 급속하게 친동성애로 기울기 전인 ‘2003년 미국’에서 쓰였기에 우리의 현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저자 윌라드 스와틀리(Willard Swartley)는 메노나이트(재세례파)로, ‘한국 독자들에게’라는 서문에서 2003년 당시와 2015년 현재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2003년 당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태도는 미국 문화와 교회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북미와 서구 유럽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결혼에 아무런 구분이 없다고 보는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일어난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성서적 가르침을 존중하는 교회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일치와 분열의 목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의 상황에서, 교회는 ‘변화를 요청하는 지배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류 문화적 관점에 대해 비수용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진단한다.

책의 전반부는 부제처럼 ‘성서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동성애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약 본문들과 ‘과감히’ 대면한다. “성서 본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성서를 너무 쉽게 뱅어리로 만드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약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성서 본문으로 이해되는 내용들과 1세기 현실일 뿐이라며 ‘내버려 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학자들의 논의를 개관한 후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동성애라고 명확히 번역된 단어가 원래 본문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서의 가르침이 동

성애라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두 이야기는 동성 간강과 환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려 주기 위한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동성 간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예로 들어 이들을 동성애로 정죄할 순 없지만, 이 두 본문에 동성애 행위의 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로, 몇몇 구약과 신약의 본문(레 18:22, 20:13, 고린도전서 6:9, 딤후 1:10)들은 동성 성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저자는 “유대주의와 구약이 동성 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비록 사람이 자녀 출산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독신으로 살더라도, 신약성서 역시 동성 관계를 금지하는 이러한 도덕적 관점을 재차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동성애를 주제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그러므로 동성애도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수님의 ‘육정’에 대한 가르침(마 5:26-28)과 ‘간음’에 대한 입장(마 5:31-32, 요 8:1-12 등), 이혼 관련 대답(막 10, 마 19),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마 19:10-12)’ 이야기 등과 ‘동정심과 거룩함’이라는 예수님의 윤리 등을 근거로 또 다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해석학적 입장에서, 동성애 논쟁에 대해 예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②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더 나아가 언약에 기초하여 결혼한 동성애자나, 아주 난잡한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다 ③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고 성서가 보다 폭넓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이다. 이 외에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4-27절과 고린도전서 6장 9-11절의 해석을 비롯해 최근 몇십년간 동성애 이슈가 서구 문화에서 떠오른 10가지 요소들, 성서해석학적 분석과 고찰, 교회의 신념과 이에 대한 반응 등을 서술했다.

저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결론을 통해 “우리는 예전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벌인 논쟁을 반복하는 일 없이 성서의 권위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성적 자유는 개인의 몫’이라는 주제넘은 전제를 보다 철저히 자기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최저 10% 할인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 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Sung Hong (left) and David Lee (right) past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respectively, at Cornerstone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III: *One Body, One Family, United Under One Vision*

BY RACHAEL LEE

Cornerstone Church, located in Harbor City, CA, is atypical as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at it doesn't have a separate Korean ministry (KM) and English ministry (EM). Instead, worship is organized according to age group, and the sermon is preached in the more dominant language for each age group while translation is made available for everyone else.

For example, in the main services for adults, Reverend Jong Yong Lee, the senior pastor of Cornerstone, preaches in Korean, and translation is offered in English. In younger services, including Sunday school, youth, college, and young adult services, the pastors preach in English, and if there are students that recently arrived from Korea, teachers are readily available to translate for them and help them to understand.

Some may be skeptical of the method of preaching in one dominant language. Wouldn't it be un-

comfortable for those who aren't fluent in the language?

For the adults, this method actually allows them to lay down their comforts and preferences and become humble before God in worship, according to Patrick Kim,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education department.

"Initially, I resisted hearing the word of God through translations because I feared that I would be receiving a diluted version of God's word," Kim wrote in a testimony published in a church booklet.

"I wanted to worship to be physically comfortable and didn't want to listen to the message with conspicuous, gigantic headphones or sing praise in my broken Korean. My pride blinded me and my view of worship was narrow [...] However, after listening to the Sunday messages and being ministered to by [Reverend] Lee, I came to understand that Biblical worship has nothing to do with personal comfort and has everything to do with sacrifice and yielding to God."

David Lee, who pastors the college students at Cornerstone, said that this format also helps the Korean American young adults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Being with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always gave me a deeper understanding of where I come from," he said. "And the cultural background of our church has helped me to learn Korean so much more as well."

For the younger ones, preaching in English and assimilating the students who just moved from Korea actually helps them to learn the language more quickly,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 peers who speak English, Lee explained.

"This is not necessarily the best method, and we're not the perfect church, but the foundation for this is from the Bible," said Sung Hong, who pastors high school students. "Hebrews and Greeks worshiped together—it's in the Scripture."

Through this method, the church

becomes united under Reverend Lee's vision for the church to be one body and one family, Lee and Hong explained.

"When I see a student, I can automatically picture the parents," said David Lee. "We have so many big events and everyone joins in together, so everyone has to know each other. Even if high school has praise night, the parents come and join in and support them. And our whole church pretty much stays until around 4 or 5 PM on Sundays just chilling and talking with one another. I guess that's just built into the culture of our church."

There are still other ways that church members build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s one body. Mission teams are multi-generational, allowing members of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o fellowship with each other and serve together. And parents have parent-student conferences with the teachers in the respective ministries, discussing the student's walk with God.

"If there are any issues or urgent matters, we open it up to the entire staff, and pray together on what might be the best way to resolve the issue," Lee said, further describing how the church works together as one body. "Because problems might not be just about that one child or person, but it might be about the family as a whole. So we all try to resolve the problem together."

"When we all come together, all of the generations, it's great. We can all learn together, grow together, and not necessarily just make it 100 percent comfortable all the time," Lee continued. "There are things we have to sacrifice, for example comfort in language or culture, but in sacrificing, we're learning together."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The Episcopal Church (TEC) Votes to Change Definition of Marriage in Canon Law

BY RACHAEL LEE

The Episcopal Church (TEC) voted on Tuesday to approve two resolutions that would allow religious weddings for same-sex couples, and to change the definition of marriage in its canon law to gender neutral language.

The definition will be changed from being defined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to "these persons," or "the couple."

Both resolutions (Resolution A054 and Resolution A036) also state that clergy still have the right under the canon law to refuse to perform any weddings that go against their conscience.

The resolutions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1.

The resolutions were passed first by vote in the House of Bishops on June 30 at the TEC General Convention in Salt Lake City. The House of Deputies then voted on the resolution the following day of the Convention, approving the measures.

The votes in favor of the resolutions were overwhelming in the House of Deputies. 85 in the clerical order voted for and 15 voted against Resolution A036, which changed the definition of marriage, while 88 in the lay order voted for and 12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94 in the clerical order voted for and 12 voted against Resolution A054, which allowed religious wedding ceremonies for same-sex couples, while 90 in the lay order voted for and 11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129 in the House of Bishops voted in favor of Resolution A036, while 26 voted against it.

Reverend Susan Russell, a deputy from Los Angeles who supports same-sex marriages, told House of Deputies News that the resolutions "provide as wide a tent as possible for the historic diversity that characterizes the Episcopal Church -- guaranteeing access to marriage liturgies to all couples while protecting the conscience of clergy and bishops who dissent theologically."

Reverend Joseph Howard from Tennessee said his votes were based on what he believed the TEC's positions and leanings were in the current day. He voted for Resolution A054 because he "thought it was a statement of honesty about where the church is and that it regularized what [the TEC has] been doing," according to Episcopal News Service. However, he said he voted against A036 as "a vote against good order because I believe it assumes a belief that has not yet become clear in our church."

20 bishops in the TEC released a dissenting statement on the results of the vote, and said, "The nature, purpose, and meaning of marriage are linked to the relationship of man and woman."

"We are grateful that Resolution A054 includes provision for bishops and priests to exercise their conscience," the statement continues, "but we realize at the same time that we have entered a season in which the tensions over these difficult matters may grow. We pray for the grace to be clear about our convictions and, at the same time, to love brothers and sisters with whom we disagree."

The Episcopal Church has some 1.9 million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had conversations on homosexuality since the General Convention in 1976 which said that "homosexual persons are children of God who have a full and equal claim with all other persons upon the love, acceptance, and pastoral concern and care for the church," according to the Very Reverend Brian Baker, the deputy chair of the Special Legislative Committee on Marriage.

Intercession on Behalf of Reverend Hyeon Soo Lim Continues

Five Months After Lim's Detainment, Korean Church Community Hosts Another Wave of Prayer Meetings

BY JUNHYEONG KIM

A prayer meeting on behalf of Reverend Hyeon Soo Lim, the Korean Canadian senior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who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will be taking place at Korea Campus Crusade (KCCC)'s Los Angeles office on July 12 at 5 P.M.

KCCC hosted a prayer meeting for Lim previously in mid-April, which was an intimate gathering of some 30 people part of the KCCC alumni organization, and friends of Reverend Lim.

This upcoming prayer meeting, however, is endorsed by several other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Holy City Movement and New Life Mission, and even has the title, "A Prayer Meeting of the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Churches and Organizations for Reverend Lim's Release."

Hun Young Jo, a friend of Lim and the lead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said during the April prayer meeting that if Lim's detainment

continues long-term, "We will officially begin an international movement to secure his release."

A draft of a petition letter to send to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Lim is expected to be presented at the end of the prayer meeting.

The upcoming Los Angeles prayer meeting follows a series of prayer meetings that have taken place in various regions. Prayer meetings took place in Toronto, Montreal, New York, and Philadelphia on June 28, and in Atlanta on June 29.

"We can't fully understand at this moment what God's will is, but we have great expectations as we look toward the One who will definitely work through our pastor and our church," said Reverend Jason Noh, who currently leads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Lim's absence.

"We believe that as we continue to gather our hearts and hold on in prayer, we will soon experience amazing things and see God's will revealed," Noh added.

Lim has visited North Korea



Reverend Hyeon Soo Lim, senior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since late January.

more than 100 times and had actively served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various humanitarian efforts. However, Lim was never heard from after his last visit into the country in late January, and Lim's family was informed of his detainment in March.

Though recent reports, including one in early June, say that the Canadian government was able to

have direct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im's condition remains shrouded in mystery. The nature of the talks have not been revealed due to their "confidential nature," according to reports.

Leaders from Light Presbyterian Church also met with lead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Canada and South Korea, seeking ways to secure Lim's release.

After Legalization of Gay Marriage, Korean Church Leaders Convene *Pastors Discuss the Need for Engagement with Greater Community and for Legal Preparation*

BY JUNHYEONG KIM

Leaders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mmunity gathered on Wednesday at a hotel in Los Angeles for a discussion on how the community should respond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same-sex marriages. Talks of holding hands with the greater community and other ethnic groups, and steps to prevent churches from facing litigation were brought up.

The gathering was brought together by Jung Myung Song, the CEO of Gospel Broadcasting Company, one of the largest Korean Christian radio stations in Los Angeles.

"We are here today to discuss

how the church must respond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Song said. "And the Korean church community needs some specific help to deal with any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is ruling."

"A nation that was once founded on Puritan principles is becoming more secularized and is deteriorating morally," said Reverend Hee Min Park, former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YNPC).

"The Korean church community must work together and engage with the greater community to defend Christian values," Park added.

"America will experience another revival if we use this opportunity

to become more united than ever, and to stay awake and pray," said Reverend Yu Chul Chin, the senior pastor of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Reverend Kyung Jin Kim, the current senior pastor of YNPC, shared an example of a Korean church in Canada--in which gay marriage was legalized earlier than the U.S.--that faced litigation, and emphasized the need for legal preparation.

Randy Ju, the Korean outreach coordinator of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a legal group that focuses on protecting religious freedom, emphasized the need for churches to adjust their policies to ensure legal protection.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 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실험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실험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